

# 잠자리 편지

한기현 글·그림



|          |  |
|----------|--|
| 주제       | 그림책을 읽고 나의 마음 표현하기   |
| 권장 차시    | 3차시  |
| 대상 학년    | 1~2학년  |
| 관련 주제어   | 기다림, 그리움, 마음 표현, 편지, 딱지 접기, 잠자리  |
| 교육 과정 연계 | 국어<br>[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br>[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br><br>통합<br>[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 작성       | 창원 북면초등학교 손희선 선생님  |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진 아이가 엄마를 그리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것 뿐이었거든요. 엄마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아이는 어떻게 달래어 갈 수 있을까요?

저수지 안에서 물에 비친 하늘을 보며 날기를 꿈꾸던 고추잠자리 유충에게 드디어 하늘을 힘차게 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냥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와 하늘 빼곡히 힘차게 나는 잠자리의 만남은 아이로 하여금 엄마께 편지를 쓰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이는 손톱만 한 편지에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열 손가락 가득 잡은 잠자리에 매달아 날려 보내지요. 엄마께 그 편지가 전해지길 기대하면서요. 그 이후, 아이는 잠자리를 볼 때마다 편지가 잘 전해졌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늦여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아이는 잠자리에게 답을 들으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며 둘의 친밀감은 점점 더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리를 맞은 채 꼼짝하지 않는 잠자리를 본 아이는 울음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꼭꼭 눌러왔던 눈물이 얼어 있는 잠자리를 보자 터져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이내 잠자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안아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이 전해지자, 잠자리는 서서히 날개를 움직이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앞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요. 마침내 엄마께서 오신 거예요! 잠자리의 언 몸에 온기를 전해준 아이의 따뜻한 손과 엄마의 따뜻한 가슴이 포개지고, 아이는 잠자리가 자신의 편지들을 엄마께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 학습 목표

-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다.
- 나만의 잠자리와 딱지 편지를 접어 그리운 마음을 전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딱지 모양의 봉투에 싸인 책이 새롭다. ‘잠자리 편지’라는 제목에 잘 어울리는 물성이다. ‘딱지 봉투에 담긴 잠자리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궁금해진다. 잠자리가 알에서 유충으로,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동안 주인공 아이는 엄마를 기다린다. 기다림은 그리움으로 변하고,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잠자리에게 전해 달라고한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잠자리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주인공 아이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 주인공처럼 기다림이나 그리움에 대한 경험에 대해 떠올려본다. 나만의 잠자리 편지를 만들고 그리운 마음을 담은 딱지편지를 매달아 전해보는 활동을 계획했다. 잠자리 만들기는 각 반 아이들의 요구와 교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볼 것을 추천한다.

**수업 준비물** 색종이, 빨간 실, 테이프, 필기구

## ■ 학습 과정

| 주요 활동 |                      | 차시  |
|-------|----------------------|-----|
| 읽기 전  | 그림책 속 한 장면 읽기        | 1차시 |
|       | 표지 살펴보기              |     |
| 읽는 중  | 그림책 함께 읽기            |     |
|       | 기다림이나 그리움에 대한 경험 나누기 |     |
| 읽은 후  | 나만의 잠자리 만들기          | 2차시 |
|       | 마음을 담은 딱지 편지 쓰기      |     |
|       | 잠자리 편지 완성하기          |     |

### 읽기 전

#### 1. 그림책 속 한 장면 읽기

- (글은 가리고) 책 속 한 장면을 살펴봅시다. 어떤 장면인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 물속에 빨간 물고기가 모여 있어요.

하늘에서 빨간 비가 내려요.

하늘에 빨간색 종이를 뿌리고 있어요.



※ 장면 속에 책 제목의 힌트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더 많은 상상을 하고 알아맞히고 싶어 한다. 초성 ‘스즈르’, 파란 가을 하늘 등의 힌트를 줘도 된다.

※ 책이 딱지모양 봉투에 쌓여있으므로 이 장면은 미리 사진으로 찍어 화면으로 보여준다.

## 2. 표지 살펴보기

■ (딱지 봉투에 쌓인 책을 보여주고) 평소에 함께 읽었던 책과 다른 점이 있나요?

예: 책이 봉투에 담겨있어요.

딱지모양 봉투예요.

책이 보자기에 싸여 있어요.

■ 봉투에 적힌 제목과 함께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줍니다.

■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 선생님 - 잠자리 편지는 무슨 뜻일까요?

- 잠자리 모양 편지가 나올 것 같아요.

- 잠자리에게 편지를 썼나 봐요.

- 잠자리가 편지를 전해줄 것 같아요.

선생님 - 딱지 모양 봉투를 열면 무엇이 나올까요?

- 잠자리요!

- 잠자리 편지 그림책이요.

- 선물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 여러분은 언제 쪽지나 편지를 쓰나요?

- 먹고 싶은 저녁 메뉴를 써서 식탁에 붙여둬요.

- 보고 싶은 사람한테 써요.

- 친구 생일에 써요.

- 사과하고 싶을 때 써요.

-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 써요.

읽는 중

## 1. 그림책 함께 읽기

■ (봉투를 열고 책의 뒤표지를 살펴보며)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 잠자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에 잠자리가 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 (속표지를 보여주며)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 빨간색 선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보여요. 잠자리 눈 같아요.  
빨간 선은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길처럼 보여요.  
색깔이 여러 가지인 동그라미가 모여 있어요.

■ 잠자리와 관련된 경험이나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잠자리 박물관에 가서 여러 잠자리를 봤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쌍잠자리를 봤어요.  
잠자리 애벌레를 본 적이 있어요.  
잠자리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날개가 찢어진 잠자리가 못 날아가고 있어서 불쌍했어요.  
잠자리를 잡아서 잠자리 입에 손가락을 대어봤는데, 간지러웠어요.  
물에 사는 검은색 잠자리가 무서웠어요.  
잠자리 눈이 신기했어요.  
나보다 큰 잠자리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꿴어요.

## 2. 기다림이나 그리움에 대한 경험 나누기

■ 각 장면마다 주인공의 마음을 생각하여봅시다.

예: 선생님 - 뒤돌아 있는 아이의 표정은 어떨까요?  
- 울고 있을 것 같아요.  
- 힘없는 표정이에요.  
- 슬픈 표정이에요.



선생님 -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 기다리다가 지친 기분이에요.
- 슬프고 그리울 것 같아요.

※ 첫서리가 내린 아침 장면, 엄마 얼굴이 보인 장면 등 각 장면마다 아이의 마음을 짐작해보거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를 추천한다. 그림책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그리워해본 경험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아빠가 일주일동안 출장 가셨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동생 낳고 병원에 계실 때 그리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명절이 되면 더 보고 싶어요.  
유치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만나고 싶어요.  
전학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 그리워요.  
서울에 사는 이모랑 사촌동생이 또 놀러오는 것이 기다려져요.  
대학생이 되어서 부산으로 간 언니가 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어요.

■ 그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영상통화를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질문을 한다.

사진을 찾아봐요.

일기장에 내 마음을 써요.

꿈속에 나오라고 기도해요.

읽은 후

1. 나만의 잠자리 만들기

■ 내 마음을 전해줄 나만의 잠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 아이들이 원하는 재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원하는 모양의 잠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탐색하는 것이 좋다.

【만드는 방법】 색종이로 접어서 만들기

- 재료 : 색종이 3장, 눈 스티커 (스티커, 네임펜 등 꾸미기 도움재료)



1. 색종이 준비



2. 반 세모 접기



3. 다시 펴서 아이스크림 접기



4. 한 번 더 아이스크림 접기



5. 끝 부분 접어몸통 완성



1. 색종이 준비



2. 반 세모 접기



3. 한 번 더 세모 접었다 펴기



4. 접어 올리기



5. 뒤집기



6. 끝부분 세모접기



7. 반대편도 접어 날개 완성(2개)



눈 스티커를 붙여 잠자리 완성



※ 다양한 무늬와 질감의 색종이를 준비하여 날개를 접거나 스티커, 네임펜 등을 이용해 날개를 꾸미면 나만의 잠자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잠자리를 접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접으면 된다.

※ 잠자리 만들기 방법은 다양한데, OHP필름에 잠자리 도안을 복사하여 네임펜을 활용해 꾸미고 고무줄을 연결해 팔찌로 만들 수 있다.



※ 또 등에 달 수 있는 큰 잠자리를 만들어도 재미있다. 잠자리 도안을 도화지에 크게 확대 복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잠자리 날개를 색종이 모자이크로 꾸미거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꾸밀 수 있다.



## 2. 마음을 담은 딱지 편지 쓰기

■ 그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후 딱지 봉투에 편지를 넣어 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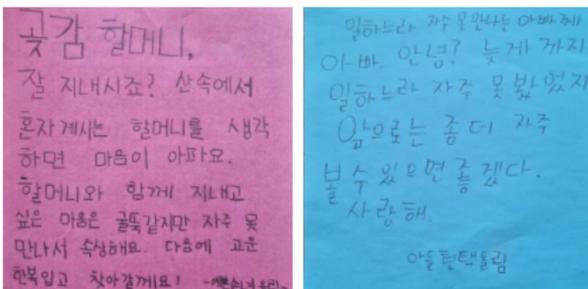
【만드는 방법】

재료 : 색종이 2장

① 보고 싶거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린다.

※ 그리워하는 대상이 없는 경우 다른 마음(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등)을 표현할 대상을 찾아도 된다고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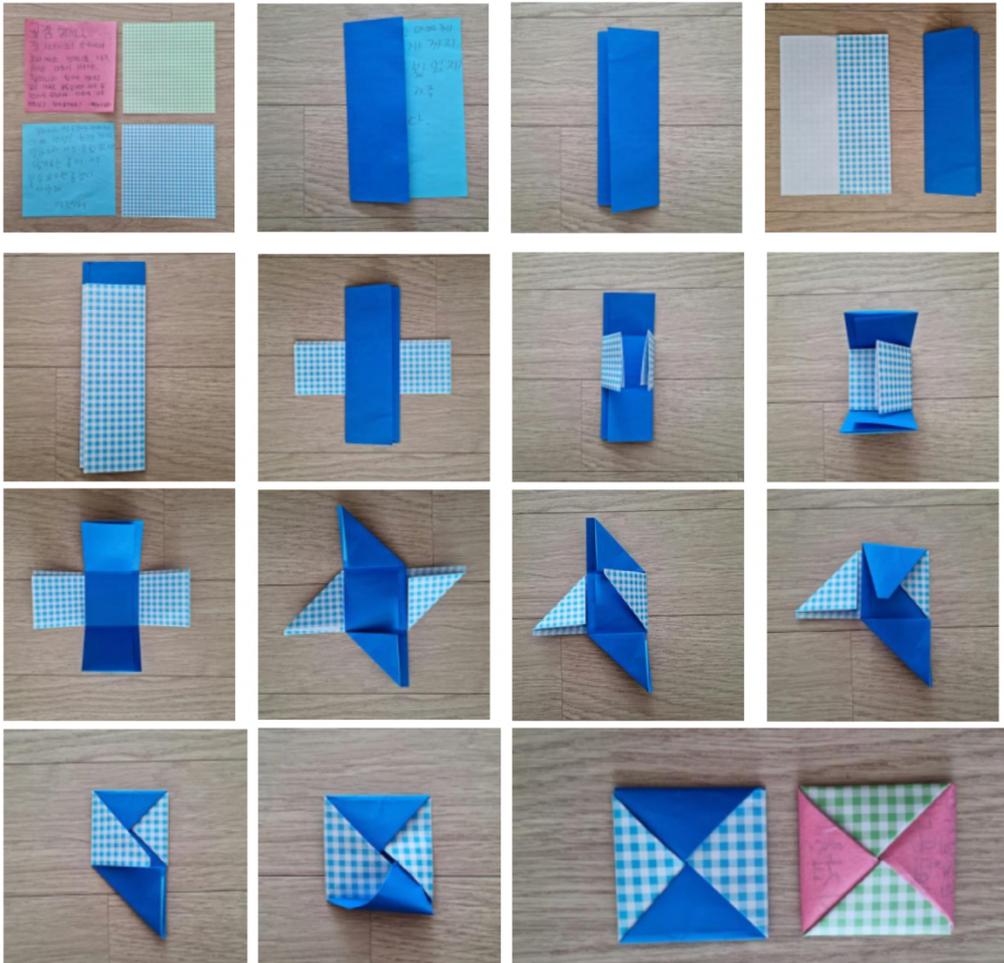
② 색종이 한 장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다.



※ 학년 수준에 따라 한 두 문장 정도의 쪽지로 쓸 수도 있다.

③ 편지를 적은 색종이와 색종이 한 장을 더 준비하여 딱지로 접는다.

※ 색종이를 3등분할 때 두 장의 간격이 일치만 하면 되므로 정확하게 3등분을 할 필요는 없다. 접을 때 겹쳐서 간격이 비슷하면 된다.



## 2. 잠자리 편지 완성하기

- 실로 딱지 편지를 나만의 잠자리에 연결하여 완성하여 봅시다.



- 친구들의 잠자리 편지를 감상하고 잘된 점을 찾아 칭찬해봅시다.
- 그리움을 담은 잠자리 편지를 교실에 매달아 전시하거나 직접 전달해 봅시다.
- 그림책을 읽고 잠자리 편지를 직접 만들어 본 소감을 나눠봅시다.

예: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잠자리가 내 마음을 진짜 전해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니 행복했어요.

잠자리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꼭 전달하고 싶어요.

잠자리가 답장도 매달아서 날아오면 재미있겠어요.